



12일 아시아의 스포츠 축제인 제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의 '수상 개막식'이 열리게 될 광저우 주창 하이신사. 사진은 지난 6일 하이신사에서 진행된 개막식 리허설 불꽃쇼. /연합뉴스

광저우 아시안게임 한국대표팀 주요 일정

13일	오후 2시	사격	남 50m 권총(진중오)
	오후 5시	축구	남 조별리그 폴레스타인전
	오후 7시	아구	조별리그 대만전
14일	낮12:30분	사이클	남 개인 추발(장선재)
	오후 1시	사격	남 10m 공기권총(진중오)
	오후 4시	유도	남 81kg(김재범)
	오후 7시	아구	조별리그 홍콩전
	오후 7:25분	수영	남 자유형 200m(박태환)
15일	오후 4시	유도	남 73kg(왕기춘)
	오후 8:31분	수영	남 계영 800m(박태환 등)
16일	오후 1시	아구	조별리그 피카스탄전
	오후 4시	유도	남 60kg(최민호)
	오후 7:22분	수영	남 자유형 400m(박태환)
	오후 8:15분	농구	남 조별리그 우즈베크 전
17일	오후 7:48분	수영	남 자유형 100m(박태환)
	오후 7:48분	태권도	남 74kg(장정훈)
	오후 8:30분	체조	남 도마(양학선)
	오후 10:30분	농구	남 조별리그 요르단전
18일	오후 5:30분	당구	여 포켓8볼(김가영 등)
	오후 7:28분	수영	남 혼계영 400m(박태환 등)
	오후 7:45분	수영	남 자유형 1500m(박태환)
	오후 8시	축구	여 예선 중국전
19일	오후 5시	당구	여 포켓8볼(김가영, 최유림)
	오후 6시	역도	여 75kg+ (정미란)
	오후 7시	아구	결승
20일	오후 2:30분	볼링	여 3인조(최진아 등)
	오후 7:16분	태권도	남 87kg(허준호)
	오후 8:30분	배드민턴	남 복식(이용대, 정재성)
21일	오후 3:30분	양궁	여 단체(기보배 등)
	오후 6:30분	레슬링	남 55kg, 60kg
22일	오후 8시	축구	여 결승
	오후 8:30분	육상	남 100m(김국영, 임희남)
23일	오후 3:30분	양궁	여 개인전(기보배 등)
24일	오전 10시	인라인	여 EP(유수숙)
	오전 10시	볼링	여 마스터스(최진아)
	오후 3:30분	양궁	남 개인(임동현 등)
25일	오후 4시	리듬체조	단체(신수지, 손연재)
	오후 6:45분	육상	여 100m 허들(이연정)
	오후 8시	축구	남 결승
26일	오후 3:15분	핸드볼	여 결승
	오후 8시	배구	남 3-4위전 및 결승전
	오후 9:45분	핸드볼	남 결승전
27일	오전 11시	배구	여 3-4위전 및 결승전
	오후 1:45분	육상	남 마라톤(지영준)

아시아인 스포츠 축제 막 오른다

참가 45개국 상징 45척의 보트퍼레이드 한국 종합 2위 목표... 개막식 16번째 입장

12일 밤 9시(이하 한국시간) 중국 광저우 시내 주창의 하이신사에서 열리는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은 '물, 생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대회조직위원회(GAGOC)는 11일 중국 광저우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막식 윤곽을 소개했다. GAGOC 관계자 지원센터 허지칭 부주임은 "개막식은 크게 보트 퍼레이드, 개막식 본 행사, 예술 공연 등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며 "오후 8시 식전 공연이 열리고 이어 본 행사가 시작되는 밤 9시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개막식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밤 9시06분이 되면 '출항'이 시작된다. '대륙으로부터의 물'과 '바다의 배'라는 제1 주제부터 '흰 구름으로의 항해'가 제2 주제, 마지막 제3 주제인 '꽃의 도시로부터의 초대'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공연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밤 10시15분부터는 선수 입장이 시작되고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가 불타오른다. 개막식 행사는 대회 주제가 함창과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자정 가까이 돼서 마무리된다. 성화 점화자와 방식에 대해서는 역시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며 공개를 꺼렸다. 허지칭 부주임은 "다만 중국적이고 동양적인 방식으로 성화 점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막식의 주제가 물인 만큼 45척의 배가 나란히 하이신사 광장으로 향하는 장면이 이날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바다의 신인 '난하이 신'이 이끄는 45척의 배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45개 나라를 상징하며 각 나라의 선수단은 배에 올라타고 9.3km를 항해한 끝에 개막식이 열리는 하이신사 광장에 도착한다. 오후 7시18분 광중 음악 광장에서 이번

남자배구 3회연속 금 도전

한·중·일·이란 우승 후보 내일 베트남과 첫 대결

한국 남자배구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대회 3연패 위업을 향해 시동을 건다. 신치용(삼성화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3일 광저우대화 스포츠 단지의 광야오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베트남과 예선 B조 첫 경기를 시작으로 조별리그에 돌입한다. 대표팀은 이어 15일 인도와, 17일 카자흐스탄과 일전을 벌여 8강 조별라운드 진출을 타진한다. 한국과 금메달을 다툰 팀으로 꼽히는 강호들은 각각 다른 조로 편성됐다. 중국은 A조, 이란은 C조, 일본은 D조에 속해 초반에 만나지 않는다. 8강 조별라운드에 올라가면 D조에서 8강 진출이 유력한 일본과 맞붙게 된다. 2위 안에 들면 8강 조별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지만, 조별라운드 경기 결과를 안고 8강 조별라운드를 치르기 때문에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 놓아야 나중에 토너먼트에서 편한 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치용 대표팀 감독은 "특히 같은 조에 편

성된 인도와 카타르는 아시아에서 5~6위권에 해당하는 강팀이다. 한국과 금메달을 다툰 이란, 일본, 중국 등을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라 본다. AVC컵에서도 이들 팀에 패한 적이 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첫 경기에서 맞붙는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편한 상대로 꼽히지만, 3연패 도전을 향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 남자 배구는 2002년 부산 대회, 2006년 도하 대회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따내 이번에도 금메달을 다툰 강호로 꼽힌다. 대표팀은 이번에도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 3연패를 달성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실추된 명예까지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예선 탈락한 데 이어 지난해 세계선수권 본선 진출 실패, 올해 월드컵에서 12전 전패 등 국제무대에서 거듭 실패를 맛봐 왔다. 세터 최태웅과 레프트 강동진 등이 부상으로 탈락하고 라이트 문성민이 뒤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표팀은 초반부터 좋은 경기를 펼쳐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대표팀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공식 훈련을 치르고 13일부터 결전에 나선다. /연합뉴스

메달 효자 종목 유도 내일 첫 금 기대

100kg 이하급 황희태 출전 최민호는 16일 금 메치기

한국 스포츠의 전통적 메달 효자 종목인 남녀 유도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본격적인 금빛 수확의 시동을 건다. 아시안게임에 나선 14명의 남녀 유도 대표팀(남자 7명, 여자 7명)은 13일 황희태(100kg 이하급), 김수완(100kg 이상급), 정경미(78kg 이하급), 김나영(78kg 이하급) 등 중량급 선수들을 시작으로 메달 사냥을 시작한다. 한국 유도는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6 도하 대회까지 금메달 26개와 은메달 20개, 동메달 27개 등 총 73개의 메달을 따냈다. 남자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최소 3~4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태릉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13일 100kg 이하급에

출전하는 황희태에게 첫 금메달을 기대한다. 유도는 지난 2006년 도하 대회에서도 대표팀 트레이너로 변신한 장성호가 한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줬던 만큼 이번에도 첫 번째로 '금빛 소식'을 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가운데 황희태가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다. 황희태는 지난 2006년 대회 90kg 이하급에서 한국 선수단의 '2호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주인공으로 이번에는 100kg 이하급으로 체급을 올려 2회 연속 금메달을 노린다. 역시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왕기춘은 지난 9월 세계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승리를 내뿜던 일본의 아키토모 히로유키에 '복수혈전'을 준비한다. 왕기춘을 꺾었던 아키토모는 금메달을 차지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던 '한관승 사나이' 최민호(한국마사회)는 16일 예정된 60kg 이하급에서 세계선수권대회 1회전 탈락의 아쉬움을 금빛 메치기로 씻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골프존 GOLFZON

아프리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OPEN

광주에 이런 스크린 골프존은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OPEN 기념 등록회원특전

- 라카무료이용
- 스크린이용권 증정
- 연회원 가입시 골프화 증정

- 골프존 대형틀 6실
- 좌타시설
- 단체팀 부탕가능
- 연습장 12타석
- 전자석 분석 시스템
- 클럽 무료 대여
- 휴인원 이벤트
- 온라인 골프대회

예약문의 : 062)671-8900

봉선동 무등 4차 복합상가 지하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료로 온가족의 이름을 감정해드립니다.

수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가능하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허가]
 社團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法人 星谷 作名·鑑定 專門 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동구계림동 마사회 진주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